

전세계 6천 교회 개척, 274명 선교사 파송

은혜한인교회 30주년 맞이해 30년사 발간



은혜한인교회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 총회는 은혜한인교회 창립 30주년과 맞물려 더욱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산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은혜 30년사'를 발간했다.

캘리포니아 풀러튼에 위치한 이 교회는 전 세계에 6천여 교회를 개척한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다.

1982년 1대 김광신 목사가 세 가정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선교 비전 아래 개척을 시작한 이래 2003년까지 22년간 부흥을 주도해 왔고, 2004년 2대 한기홍 목사 취임 이후 오늘날까지 성도수 5천여 명의 대형교회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

15일 오후 5시, 이 교회 비전센터에서 지나온 역사의 숨결을 담은 '30년사' 출판기념 감사예배가 열렸다.

편찬위원장 김성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제총회 산하 목회자 및 선교사, 교인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주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는 "이민 역사 속에 은혜한인교회가 있다는 것은 타 커뮤니티에 자랑스럽고 모범이 되며, 나아가 한인들에게 꿈을 심어 준다. (은혜한인교회는) 단순한 개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메이커다. 30

주년을 맞이해 교포사회의 대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엄영민 목사는 "어느 지역이나 교회의 역사는 소중하지만 이민교회에서 30년의 역사는 본토에서의 3백 년의 역사 만큼이나 소중한 역사라 생각한다"면서 "단일교회로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둔 유례가 없다. 교단과 교파 신학의 차이를 떠나 모든 이민 교회에 큰 도전이 됐다. 앞으로의 30년을 또한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총회 김대형 총회장은 "지난 30년동안 지켜본 바, 김광신 목사님은 개척 이래 세계선교를 우선한다는 목회 방침을 고수해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예산으로 책정해 세계복음전파에 헌신해 왔다"면서 "지난 30년간 56개국에 274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세계 선교에 일획을 그어 열정적인 선교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평했다.

김광신 원로목사는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모든 일이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축복의 결과"라고 운을 뗐다.

"개척 초기, 반주자가 없어 반주자를 달라고 간구하면 즉시 반주자가 나타났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없어

기도하면 대뜸 지휘자가 생겼고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였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한가지 소원 때문에 세계선교에 전력투구해 왔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셨지만, 지난 30년간 시간과 물질로 헌신한 성도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누가 뭐라 해도 은혜한인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신 교회"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기홍 목사는 "92년 김광신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내 달라. 바울과 마나바도 가지 않았느냐'면서 설득하시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원로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도 선교사처럼 사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세계 선교 마무리라는 비전을 갖고 달려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OC교회 증경회장 정영수 목사가 축도함으로 이 행사를 마쳤다. → 3면에 계속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40일 기도회를 설명하고 있는 제이슨 허쉬 디렉터

대선 앞두고 기독교인들 백악관 앞 40일 기도회로 결집

다윗의장막 DC 기도회, 전국적인 기독교인 집회로 예상

대선을 앞두고 40일 기도회가 백악관 앞 Ellipse 잔디밭에서 개최된다. 이같은 기도회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인 기독교인들의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

'다윗의장막(David's Tent)'으로 불리는 이번 기도회는 9월 25일을 시작으로 대선 당일인 11월 6일까지 매일 24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번 기도회를 주최하는 워싱턴 하우스오브프레이어(Washington House of Prayer) 제이슨 허쉬(Jason Hershey, YWAM DC)는 "미국의 리더십을 결정짓는 대선이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40일 간 지속적인 찬양을 통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을 높이길 원한다"고 계기를 밝혔다. 허쉬는 "정부의 바로 옆에서 예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전국적인 규모로 기독교인들을 초청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기는 하지만, 대선과 미국의 미래에 기도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허쉬는 "대선과 미국을 위해 하는 기도도 성경적이고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예배와 예수님의 승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속에서 하나님 마음

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윗의장막 DC 기도회 웹사이트(www.davidstentdc.org)에 따르면, 기도가 시작되는 9월 25일은 우연의 일치인지, 유대절기 중 '속죄의 날(Day of Atonement)'을 의미하는 '욥키푸르'다.

허쉬는 "다윗의장막 기도회 첫날이 욥키푸르라는 것을 알고 나서, 9월 25일 저녁 7시부터 26일 저녁 7시까지 찬양 음악이나 무대 인도 없이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도록 권유된다.

한편, 워싱턴 DC를 중보하는 여러 고기도운동을 이끌고 있는 인터내셔널갈보리교회(담임 이성자 목사) 역시 8월부터 100일 간 릴레이 기도운동을 통해 대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문의: www.davidstentdc.org

권나라 기자

라이프 섹션

13면 복새통

- » 신간소개 | 용서와 상담, 배제와 포용, 공동체로 사는 이유 외
- » 서평 | 문답식으로 교회교육 교재 사용 가능한 <기독교 강요>

16면 헬스 & 푸드

마셜 셰프와 함께 이탈리아 요리 속으로

17면 커버스토리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김성전 장로 이야기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DAVID KANG이 한인 어르신을 위하여 메디케어 / 메디칼 세미나를 합니다.

LIC #0F16211

하나 헬스의 세미나는 특정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세미나입니다.

- 처음 메디케어를 신청 할 때 본인이 알아야 되는 필수 사항은?
- 메디케어의 기본. PART A, PART B, PART C, 란 무엇인가?
-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 메디케어의 보장 범위?
-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 과 그 혜택은?
-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자격 조건과 그 혜택은?
- 메디칼이란 무엇인가?
- 메디칼의 자격조건과 그 혜택은?
- 2013년 변화되는 메디-칼 혜택은?

세미나 일정

- ▶ 9월 22일 토요일
 LA office 10:00 ~ 12:00
 Buena Park office 1:00 ~ 3:00
- ▶ 9월 29일 토요일
 LA office 10:00 ~ 12:00
 Rowland Heights office 1:00 ~ 3:00

세미나 참가 신청은 하나헬스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헬스와 함께하실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Medicare Part 'C' Plan 전문 회사인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에서는 소수의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으신 보험 Agent를 LA 와 OC 에서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은 현재 보험 License가 있으신 분이됩니다. 모든 Training과 Certification 교육을 도와 드리며, 높은 수입을 약속합니다.

LOS ANGELES	ORANGE COUNTY	ROWLAND HEIGHT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Cell 714-614-0903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Allen Min LIC# 0D19973 Cell 213-272-2412	1722 Desire Ave. Suite.106 Rowland Heights, CA 91748 Mi Young Hong LIC# 0672051 Cell 714-715-6345

건강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광고용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는 사회 서비스 기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주무관청(CMS) 혹은 사회보장국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혜택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플랜을 선택할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 213-500-4563
 Customer Service
 1-855-386-3088

한가위 '情가득한' 사랑의 점심

3백여 한인 독거노인에 쌀 한 포대씩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국을 떠난 독거노인들의 마음은 더욱 싱숭생숭하기만 한데... 이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가 13일 정오 피코와 버

몬트 인근 필그림교회(1233 Vermont Ave.)에서 한인 노인 3백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참석한 노인들에게는 쌀 한 포대씩 전달됐다. 이 행사는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정기

적으로 개최해 온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한미은행 다운타운 지점장 주디리 씨를 비롯해 직원 2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배식과 진행을 도왔다. 한미은행 측은 지난 3월 한미 네이버 자원봉사 프로그램(Hanmi Neighbor



한미은행 직원 2명도 방주교회와 함께 지역사회 섬김에 나섰다.



Volunteer Service Program)을 발족시킨 이후 행원들에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앞서 지역 사회를 위한 구제 사역에 열심을 보이고 있는 방주교회 측은 "노숙자들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라며 "그들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고단해 생긴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양을 위해 애쓰시고 아파하셨다"며 "소외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고 노숙자 사역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정한나 기자

나성제일교회 임직예배 드려

김광삼 목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길"



이날 임직받은 직분자들과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가 장로 취임, 명예장로 추대, 권사 취임 예배를 16일 오후 3시에 드렸다. 김광삼 목사는 "주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다. 오늘 세움을 받는 임직자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서로 돌아보고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

광 돌리는 일꾼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사회 김광삼 목사, 기도 성재성 장로, 설교 김대순 목사(가나안교회 원로목사, 미주한인장로회 중경총회장), 권면 이준우 목사(렐리안인커뮤니티교회), 축사 송상현 목사(미주한인장로회 가주노회 중경노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장로에 성제이슨 장로, 명예장로에 이병걸 장로, 권사에 김정애·홍명옥·성우심·이명숙 권사가 임명됐다. 주소: 123 S. Hobart Blvd, CA 90004 문의: 213-388-7101

토마스 맹 기자

창립 34주년 드림교회 "꿈을 좇아 비상하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되기 위해, 비전선언문 1111운동 선포



파사데나에 위치한 드림교회가 창립 3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16일에 드렸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드림교회(이성현 목사)가 창립 34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감사예배를 16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날 이성현 목사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예베소서 1:15-23)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설교 서두에서 34년 전인 1978년 글렌데일에 위치한 미국인 교회에서 드림교회의 전신인 (구) 글렌데일연합감리교회를 시작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드림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을 이어갔다. 이 교회는 UMC교단으로, 올해 108주년을 맞은 홀리스톤교회와 하나돼 가고 있다. 그는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이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여야 한다"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꿈을 좇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드림교회는 지난 8월 달까지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치고, 비전선언문 1111 운동을 선포했다. 이 운동은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1-하나의 공동체 세우기, 10-국내외에 10개의 교회 개척, 100-100개의 선교지 후원, 1000-1000명의 출

석교인으로 부흥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성도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1-일년에 1명 정도, 10-일주일 동안 10명의 성도들과 교제, 100-일주일 동안 100분 기도, 1000-일년에 1000장 성경 읽기 등이 있다. 이날 드림교회 전 성도는 창립 34주년을 자축하면서, 1111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 교회는 인터넷 및 독서를 할 수 있는 드림카페를 오픈하고 30일에 봉헌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교회 주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문의: 626-793-0880

토마스 맹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담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다들모직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전문점! 스마트 월드 로데오 갤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 323.454.7872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후지타와 함께라면 더욱 행복해 집니다

사랑받는 명품!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세계 최고 전신안마기 KN7005R

특대일 반값 \$3,900 +Tax 5년 워런티 24개월 / 12개월 무이자 플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TOURMALINE + ALPHA 세계최초 특허품

- 장거리 운전중 피곤하신 분
- 어깨나 팔이 아프신분
-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분
-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 분
-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 분

강력한 음이온+원적외선 발생 \$30 +Tax

미주장신대 총장 이취임식... 신규 리더십 교체

제 6대 총장에 이상명 박사 취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가 신·구 총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미주장신대는 18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 새교육관에서 제5·6대 총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인수 직전 총장에 이어 제 6대 총장에 이상명 박사가 취임했다.

1977년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시작된 미주장신대의 개교 당시 이름은 남가주장로회신학교. 2명의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78년에는 미주장로교회총회(현 KPCA)의 직영 신학교로 인정받았다. 초대 학장 김성락 박사를 비롯 2대 김계용 목사, 3대 박희민 목사, 4대 서정운 박사가 학장을 맡았다. 2006년 연방정부 공인 기관인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회원 승인을 받아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2007년에는 산타페 스프링스로 새 교사를 구매해 이전했다. 2008년 김인수 박사가 5대 학장 취임했으며, 이후 교명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로 개명했으며 학장을 총장으로 개칭했다.

직전 총장으로 섬겼던 김인수 박사는 한남대학교(문학사)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교역학 석사)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신학 석사)에서 수학했으며, 도미 후 듀부크 신학대학원(S.T.M)과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Ph.D.)에서 공부했다.

김 전 총장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26년간 교수를 역임한 전형적인 학구파다. 한국교회사학회 회장과 한국신학교육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로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한국신학사상사>, <일제의 한국교회 박해사>, <예수의 양 주기철> 외 다수가 있다.

한편, 미주장신대 사무처장 및 교수처장을 거쳐 이번에 제 6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상명 박사는, 계명대학교(이학사)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교역학 석사)에서 수학했으며, 도미 후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에서 M.A.와 Ph.D.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구원의 우주적 드라마: 인류학적, 우주론적 전망에서 바라본 바울서신 연구>가 있다.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복음적으로 잘 훈련 받는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미주장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의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양질의 신학 교육 >맑고 역동적인 영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교육 >인문학적 교양 교육 >이중언어교육이 바로 그것.

그러면서 이 총장은 “김 전 총장의 학자적 마인드를 본받아 미주 장신을



미주장신대 김인수 5대 총장(사진 왼쪽)에 이어 이상명 박사(오른쪽)가 6대 총장에 새롭게 취임했다.

자랑스런 신학교로 발전·육성시키겠다”면서 “총회와 노회, 교직원 및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미주장신대 이사장 김인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 감사예배의 식순은 대부분 KPCA 총회 인사들이 맡았다. 대표기도는 KPCA

서남노회장 장문현 목사가 드리고, 말씀은 증경총회장 황천영 목사가 전했다. 총회 서기 박성규 목사와 총회 신학교육부장 최명환 목사가 각각 축사했다. 이어 서노회장 이상훈 목사와 LA노회장 박성진 목사가 격려사 한 다음, 증경총회장 김상구 목사가 축도했다. 정한나 기자

“세리처럼 공흠 구하는 기도가 중요”

은혜 30년사 400페이지, 3천 5백부 인쇄

나성제일교회 추계부흥회 개최

나성제일교회(김광삼 목사)가 추계부흥회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14일 둘째날에 감사로 나선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는 ‘하물며’(눅 18:1-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민 목사는 “여기서 과부가 받았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한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담임 목사님이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신앙여정에 대해 간단히 전했다. “중학생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다.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그때부터 부모님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포기하고 나를 놓아주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목사가 돼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부모님의 핍박으로 내 신앙이 더 단단되고 결국 목사가 됐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다. 고난이 올 때 인격과 신

앙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것을 믿기 바란다.”

또 민 목사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나오는 택하신 자들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쫓아가는 사람을 뜻한다”며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인 것과 달리, 세리는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면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내가 나 잘난 맛에 목회하고 상담해 보니 사람들이 걸로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고 등지더라. 이제는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심방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이 기도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늘 자복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나와 나의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한을 푸는 것을 놓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며 “이것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도 살고 교



둘째날 감사로 선 민경엽 목사가 하나님의 공흠을 구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회도 산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민경엽 목사는 나침반교회에 부임하게 된 과정, 새 성전을 찾는 가운데 전 성도가 기도 제목을 놓고 10만 번 이상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 브레아에 위치한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부흥회에는 민경엽 목사 외에 첫째날 박광철 목사(조이헬로우교회), 셋째날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가 감사로 초청됐다. 나성제일교회는 LA 한인타운 내 2가와 호버트에 위치해 있다.

토마스 맹 기자



30년사 출판에 대한 소감을 전하는 한기홍 목사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 개최

체육시설 갖춘 은혜광장 오픈 테이프 커팅식도 진행

→1면으로부터 30년사는 역사성과 사실성을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역사를 시대별, 사역별로 정리해 펴냈다. 400페이지 양장본으로 제작했으며, 증정·배부용을 합해 3천 5백부를 인쇄했다.

이날 감사예배에 앞서 교회측은 목회관 앞뜰에 새롭게 마련된 ‘은혜광장’ 오픈을 기념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지기도 했다. 수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은혜광장은 배드민턴과 족구 등 체육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주말에는 주차장으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교회 측은 “교인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도 만남과 친선, 교제의 목적으로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은혜한인교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국제총회 및 세계선교대회를 개최 중에 있다. 이 교회가 소속된 국제총회는 198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측 미주연합노회로 시작했으며, 산하 대륙과 선교지별 10개 노회를 두고 있다. 1대 총회장에 김광신 목사가, 2대 총회장에 한기홍 목사가 섬기고 있다.

정한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커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속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이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유럽 오페라 스타 테너 김준만... 그가 만난 하나님

최근 캘리포니아로 이주 “제일 전성기인 지금부터 하나님 찬양할 것”

고2 때 퇴학 당한 문제아 폼생폼사 마피아로 살다

자살의 문턱에서 하나님 음성 들은 후 회심

노래 3곡에 1만 유로를 받는 귀한 몸값, 테너 김준만. 그간 유럽과 아시아 무대에서 종횡무진 달리다 11개월 전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새 동지를 틀었다. 11일 오후 인터뷰 약속 시각에 맞춰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아스팔트 앞마당에 마중 나온 그의 첫 인상은 한마디로 예술가였다.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에 부리부리한 눈매가 특히 인상적이었고, 몸이 약간 그 자체라는 성악가답게 크고 풍만한 체격을 지녔다. 무엇보다 20여 년간 유럽 생활을 해서인지 유럽 사람 냄새가 나는 듯했다.

굴곡 많은 내 인생의 주제곡은 (엘리아의 하나님)

거장 움베르토 보르소를 사사 유럽 오페라계 스타 등극해 전세계 1261회 공연

세계적인 거장 움베르토 보르소를 사사하고 7개 국제콩쿠르에서 일제히 1등을 휩쓸며 일약 유럽 오페라계 스타로 등극했다.

‘테너가 평생 올라야 할 가장 높은 산’으로 불리는 주세페 베르디의 오텔로 역을 주로 맡았다. 지금까지 독창회 40여 회를 비롯해 1,261회의 공연을 즐기치게 해 왔다.

20대 후반에 고국을 뒤로 하고 홀연히 유럽으로 떠난 뒤, 동양인들은 감히 설 수 없는 북유럽의 거친 경쟁 속에서 살아 남았다. 그는 ‘오페라계의 이단아’라고도 불린다. 관객과의 호흡을 중시하다 보니 다소 파격적인 방식을 취할 때도 있다. 노래만 부르고 들어가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장르의 경계를 넘어 팝도 하고 재즈도 한다. 한 달에 스무 번은 여행을 하면서 살았다. 오늘은 암스테르담, 내일은 오슬로, 모레는 루마니아.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내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이쯤 하면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 테너였는지 대략 감이 잡힐 테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 주가를 달리던 그

가 돌연 찬양 부흥회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화제다.

보아하니 아예 이 길로 주욱 갈 테세다.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유럽 오페라계를 제패했던 인물인데 말이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돌연 찬양 사역에 발을 들여놓은 건지. 다짜고짜 본론부터 물었다. “뭐 때문인가요?”

그러자 그는 과란만장했던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자면 길다. 우선 그의 집안 배경부터 들여보자. 5대째 크리스천인 그는 할아버지 장로, 할머니 권사 밑으로 줄줄이 교회 직분을 하나씩 가진 정경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오페라 가수 서혜영이 그의 외할머니. 대대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살림이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가문에 문제가 하나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김준만이다. 흔히들 말하는 ‘건달’보다 정도가 심한 ‘마피아’로 살았으니 말 다 했다.

모태신앙이었음에도 교회 갈 날이 없었다. 맨정신으로 교회 갈 날이 없었다. 어쩌다 소주 몇 병을 들

뽀뽀이 흠어졌어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 좋은 일들이 굉장하 많이 벌어졌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건만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났다. 친구들도 그를 욕하고 떠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을까.

그 심경을 헤아릴 순 없지만, 어쨌든 그는 기로에서 자살을 선택했다. 당시 그의 나이 27세. ‘이깟 인생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작정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두드린 그를 부르신 것.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생생한 음성이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떨어졌다.

이후 김준만에게 제2의 인생이 열렸다.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파노라마 같은 그림이 그 앞에 펼쳐졌고, 감화와 감동으로 내내 눈물이 앞을 적시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인생의 주제와 목적이 통째로 뒤바뀌는 체험도 이때 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주의 종이 되고자 신학교에 진학할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단 돈 1백만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테너 김준만

에 합했는지 가난한 청년 김준만에게 이탈리아 유학의 길이 열렸다. 어렵사리 떠난 유학길, 가난한 유학생이었으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을 터. 그런 와중에 운 좋게도 그곳에서 귀인을 만났으니, 그의 이름은 움베르토 보르소(Umberto Borso).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잘 알려진 거장이다.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고 있던 보르소 선생으로부터 그는 사사했다. “7~8년간 한 번도 시내에 나가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하신 거죠.”



20대 후반 고국을 뒤로하고 홀로 유럽으로 떠난 김준만은 7년간 움베르토 보르소를 사사한 후 유럽 오페라계의 스타가 된다.

이키고 거나하게 취한 채 예배당 맨 뒷자석에 앉아있다 교회 어른들의 핀잔에 심사가 뒤뜰린 게 한두 번이었을까.

그렇게 막장 인생을 살던 그였다. “저 때문에 식구들이 곤경에 많이 빠졌죠.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도

계속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던 중, 가만히 생각해보니 테어나 지금까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 주일학교 시절부터 찬양해 온 그였다. 기도의 응답으로 ‘찬양’을 받았고,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서원했다. 이 기도가 그분의 마음

돈 한 푼 없는 김준만에게 보르소 선생은 매일같이 50유로씩 밥 사 먹으라며 용돈을 주곤 했던 따뜻한 스승이기도 했다. 거목의 그늘 아래에서 오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이윽고 그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섰다.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북유럽 극장에서 테너 김준만을 환대하기 시작했다. 폴란드를 비롯해 체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루마니아 등의 메인 무대에서 말이다. 그리고 어느새 그의 몸값은 노래 3곡에 1만 유로가 됐다.

“사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이 제일 전성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내

세상의 부귀영화 모두 내려놓고 캘리포니아 한인교회 순회

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 분의 일을 하라고 저를 이곳 캘리포니아로 부르셨구요.”

“자살의 문턱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앞으로 제게 하실 일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노래, 즉 오페라를 공부한 것도 제가 만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죠.”

그에게 현재 콘서트 프로모터라는 직업을 가진 두 번째 아내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다. 전에 폭력은 물론 사건 사고가 준비했던 그의 인생이 이 아내 덕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됐다.

테너 김준만이 좋아하는 성구는 잠언 4장 8절이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 가훈과도 같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온 말씀이기도 하다.

요즘 그는 매주일 캘리포니아 한인교회를 순회하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아니, 노래라기보다는, 그의 마음과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다.

물론 ‘엘리아의 하나님’이 주제곡이다. 내달 19일엔 나침반교회에서 찬양 부흥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그와 함께 찬양 사역에 관심 있는 음악인들과 연대해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1~2주에 한 번, 정해진 장소나 교회를 순회하면서 꾸준히 집회를 해나가고 싶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보파리를 신명 나게 풀어헤치겠다는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하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내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킨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푼!
중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 (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컬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영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통신생의 (아카데미컬 학위취득)
 -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Lee University
 - Oral Roberts University
 - Indian University
 - Liberty University
 -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재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문 최상의 장학금 지급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 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신학 Ph.D 상담학 Ph.D.	상담학박사(D.C.C)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신학 Ph.D	48		
	상담학 Ph.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2012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레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친후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9월 24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레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eusa.com / ic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SS혁신보고서”의 저자 김만형 박사 초청 자녀교육 및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다음세대의 부흥, 주일학교 성장 동력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할지... 학교교육으로는 자녀의 인성교육은 물론 신앙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교육마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교회교육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I 강사소개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교육학 박사(Ph.D.)
현)천주교교회 담임목사
(제)에듀넥스트교육개발원 원장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총신대학원 교수(출강)
저서)SS혁신보고서, SS자녀교육보고서,
예배 속 드라마 1,2, 크리스천축제1,2,3

I 일정

9월28일(금) 저녁7시30분 자녀교육세미나 1
9월29일(토) 새벽6시00분 자녀교육세미나 2
9월29일(토) 오전10시-오후4시 주일학교교사 세미나
9월29일(토) 저녁7시30분 자녀교육세미나 3
9월30일(주일) 오후3시 자녀교육세미나 4
10월1일(월) 오전10시-오후12시 목회자세미나
10월1일(월) 오후1시-3시 차세대술루션 목회자 포럼

I 장소 나침반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el. (562) 691-0691

I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목사),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목사)

I 문의 714) 699-0210, 562) 691-0691

후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변영의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목사), OC목사회(회장 신중은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손원우집사),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목사), 차세대연구소(소장 송규식목사)

담임목사 청빙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는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선교하는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와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M, Div) 이민목회 5년이상 경험이 있는자.
2. 미국 거주 취업이 가능한자.
3. 이중언어 (한국어,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자(우선)

제출서류

1. 이력서 (가족사진 첨부)
2. 신앙고백, 목회와 선교에 대한 소신서
3. 학력증명서사본
4. 목사 안수증서 사본
5. 추천서 2통(추천인이 직접보냄)
6. 설교 2편 (CD 나 음성파일 또는 웹사이트 링크)

보낼곳

이메일: sangwoo@sbcglobal.net
담당자: 당회서기 우상욱 장로
서류접수 마감일: 2012년 10월 30일

참고사항

1. 모든 서류와 문외는 이메일로 만 받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보내 주십시오.
2.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후 청빙후보가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교회전반에 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후에 영상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교회 웹사이트: www.arkmissionchurch.org

새크라멘토 방주선교교회 임시 당회장 임동하 목사
Ark Mission Church, P.C.A

교회 단신

가나안교회 음악목사 청빙

가나안교회는 성가대 지휘 및 목회 사역에 동참할 음악목사를 청빙한다. 응모자격은 믿음이 신실하고 정규신학 M,Div. 이상 학위가 있으며 음악을 전공하고 해외한인장로회(KPCA)에서 인정한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분으로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로 제한된다.

지원자는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음악 목회에 대한 비전, 추천서 1부를 우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Canaan Korean Church(청빙위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canaan0691@gmail.com

찬양선교 음악회

찬송가 보급, 찬양사역자 지원을 위한 '찬양선교음악회'가 오는 10월 7일(주일) 오후 6시 주사랑선교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캘리포니아메스 터코칼, LA 남성 선교합창단, 소노리 스싱어즈, 이화보컬양상봉, 예림피아 노트리오, 바리톤 장상근이 출연한다. 입장료 무료.

주소: 17054 Bixby Ave. Bellflower, CA 90706
문의: 562- 714-0691

문의: 626-419-6804

글로벌선교교회 실버클럽

실버클럽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세도나로 관광을 다녀왔다. 한국 부산에 위치한 동서대학교 교환학생들이 풀러튼의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9개월간 수업하며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권사회에서는 9월 22일(토) 옥스나드에서 친교모임을 한다.(문의: 909-263-4069 오인순 권사)

초급 기타 클래스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성가대실에서, 중급 기타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호프채플에서 진행된다.(초급 문의: 909-263-4069, 중급 문의: 626-913-2911)

사랑의교회 교역자 청빙

사랑의교회에서 뜨거운 열정과 겸손으로 동역할 교역자를 청빙한다. 분야는 EM 교역자(전도사 또는 목사)와 성가대 지휘자, 찬양 인도자 각 1명이다. 이력서와 학력 증명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EM 지원자는 사역비전 및 계획서 별도 첨부)를 9월 3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Love Korean Church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E-Mail: lk0085@sbcglobal.net
문의: 213-380-0085(교회) 213-407-2353(목사관)

세계비전교회 교육전도사 청빙, 영아유치부 및 Youth Ministry 사역자

샌퍼난도 벨리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가 교육전도사 2명을 청빙한다.

1. 영아유치부 파트타임 담당 전도사 1명
2. 중고등부 (Youth Ministry) 파트타임 담당 전도사 1명

문의: 714-873-7315
E-Mail: wvc4him@gmail.com

제 97회 햇불 중보기도회 및 창립 7주년 기념 찬양 축제

제 97회 햇불선교기도회 및 제 7주년 창립 감사 찬양 축제가 9월 27일 오후 2시에 햇불선교센터 기도원(Torch Mission Center)에서 펼쳐진다. 국제 찬양운동신학원, 김명현 교수, 서동현 전도사, 최준섭 집사, 피터 김 목사, LA베델장로교회 찬양팀이 출연한다. 제 98회 햇불선교기도회는 10월 27일(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주소: 32000-263Rd St. E. Llano, CA 93544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신청 접수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제 1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신청자 접수를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받는다.

사회봉사 실천에 관심있는 교회와 단체, 개인은 LA기윤실 홈페이지(www.lacem.org)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최종발표는 10월 22일이며 수상자는 기

디퍼런스 미주본부 은사 테스트 세미나

오는 29일(토) 오전 9시 세리토스 지역 뉴헤브교회에서 LA 12차 디퍼런스 세미나를 개최한다. 8주에 걸쳐 열리는 이 세미나는 기질, 선호경향, 은사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은사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한다. 권오형 목사(나누리커뮤니티교회), 손성애 사모 등이 강사로 선다. 참가비는 개인 150 달러, 부부 250 달러이다.

문의: 949-338-9191

봉수교회서 예배인도, 장대현교회터서 기도

크로스선교회, 북한 방문 후 보고하는 시간 가져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북한 땅에서 일어납니다

The Cross Mission 남가주크로스선교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민희 집사, 임덕순 장로, 이종용 목사, 제임스 박 장로.

크로스선교회 관계자들이 북한해외 동포원호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북한 평양과 황해북도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시간을 14일 낮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었다.

자리에는 이번에 북한방문에 참여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임덕순 장로(방북 집행위원장), 제임스 박 장로(크로스선교회 운영위원장), 이민희 집사(크로스미션 운영위원)가 참석했다.

크로스선교회 주관으로 구성된 30명의 북한 방문단은 평양 봉수교회, 동평양 제약공장, 평양 근교와 황해북도에 위치한 종합 영양제 공장, 육아원을 방문, 그리고 장대현교회터를 방문해 간담한 기도를 드렸다고 선교회는 밝혔다.

다. 선교회 측에 따르면 특히 의미있는 일로, 봉수교회에서 미주 방문단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예배를 인도했다는 것이다.

이종용 목사는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순수하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서 "통성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호텔에서 묵으면서도 새벽마다 소리내서 찬양을 한 것이 큰 은혜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물품이 아이들에게 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며 "이 선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크로스선교회는 북한 현지에 기아치료제인 영양버터 공장과 비타민 공장을 가동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농촌에 진

제 6차 영상설교세미나 열린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한미장로교회에서

제 6차 영상설교세미나가 10월 1일 오전부터 4일까지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석금 목사(영상설교야카데미 대표)가 나선다. 김 목사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림설교와 파워포인트 130여 편을 출판해 한 국교회와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또 영상설교를 위해 관운공대와 동 대학원에서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용

타일을 데코, 스위시 맥스, 안 카메라, 파일변환프로그램 등 기타 목회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다.

10월 1일 오전에는 오픈강좌가 진행되며, 회비는 신규회원 100불, 평생회원 300불, 자료비 50불(세미나 참석시)이다.

문의: 213-321-4433(곽부환 목사) 213-255-1725(양경선 목사)

토마스 멩 기자

www.rosehills.com

추석

가족간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로즈힐 공원묘지

올 추석에는 100년 역사, 1,440에이커, 170만평의 단일묘지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로즈힐에서 그리운 가족의 추억과 만나세요.

추석맞이 로즈힐 투어 이벤트 9월 22일(토) ~ 23(일) / 9월 29일(토) ~ 30(일)

로즈힐을 방문하시면 한국인 카운셀러들의 친절함 상담과 로즈힐 투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FD970)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한국어문의 1-877-767-8850

아름다운 해피엔딩~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y

[이 사람] 파트타임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전병주 목사

약자지결한 스타일이라기보단, 조용조용한 성격이다. 어딜 가나 있는 듯 없는 듯 별 티가 안 나는 캐릭터다. 하지만 교회 내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버티내는 특성을 지녔다.

유초등부 파트타임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다가 교육목사를 거쳐 어느새 담임목사가 된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 이야기다.

전 목사는 한국의외국어대학교 독일 어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친 뒤 뉴질랜드에서 6년간 부교역자로 목회 경력을 쌓았다. 미국에 온 건 2005년. 늦기 전에 신학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란다. 원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 탈북신학교를 택했고 2008년 구약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나성한미교회와의 인연은 2007년부터. 파트타임으로 섬기다 전임 목사 사임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4월4일 담임 목사에 취임했다. 해서 이제 2년을 갓 넘겼다.

교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30-40년 미국에 안착한 기성세대다.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다.

1984년 이진태 목사에 의해 개척된 나성한미교회는 올해로 벌써 29년째를 맞이했다. 내년이면 서른.

이민교회지곤 서른이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다. 이민교회가 지닌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아픔과 상처가 많았다.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30-40년 미국에 안착한 기성세대다.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다.

전 목사는 인터뷰에서 네덜란드의

국 거거서 이민교회에 대해 많이 배웠지요.

-탈북에서 성서신학으로 Th.M.을 마쳐셨는데.

“잠재력을 지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로서 해동돼야 한다”

“목회는 신학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

신학자 크래머(Kraemer)의 말을 빌어 “교회 내 평신도들은 ‘동결된 자산(frozen assets)’이라며 ‘잠재력을 지닌 이들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로서 해동(解凍)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학부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이유가 있나요.

독일어를 공부한 건, 원래 신학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학부 때부터 신학 서적도 많이 봤고, 원어도 보고 그랬어요. 독일에도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신학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해야 하더라고요. 10년 이상 공부만 하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던 중 마침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목회할 기회가 생겼고, 결

원어를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탈북에 갔구요. 목회는 기본적으로 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해 나가는 것인데, 최근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신학 못지 않게 인간 이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나 상담, 심리 등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해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실제로 관련 책도 보고 있기도 하구요.

-요즘 역점을 두고 있는 목회 방침이 있다면요?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저도 어떤 의미에선 배우면서 목회해 나가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는 부목사 때와 많은 게 다르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많이 느껴요. 보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란 결국 목양인데, 순수하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케어하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게 되죠.

무엇보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다워야 하고, 교회 역시 지역 사회 앞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성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상을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하고, 그 방향에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

이 중요하구요.

프로그램을 하나 시행할 때에도 다른 교회에서 한다니까 따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쉽게 말해 프로그램이란 웃인데, 우리 교회 실정에 맞는 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에 맞춰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잠재력을 깨워 이것을 교회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크래머의 말이 많이 와 닿아요.

오래된 교회들은 여러모로 경직되거나 폐쇄적이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동결된 자산인 평신도들의 동결돼 있는 잠재력을 녹여내고 해동시킬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정하나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월드타운 치유센터/기도원
 이제 멀리가실 필요 없습니다. 한인타운 중심지에 있습니다.
 병고침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불같은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신유의 은사로
 각종 암병, 중풍, 우울증, 신경통, 당뇨가 치료되며
 사명자들은 사명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됩니다.
 자녀, 가정, 사업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드타운 치유센터로 기도하러 오세요.

개인 기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월드타운 치유센터 간증자들
 성령의 강력한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목사 323.496.2550 자궁암 말기, 저혈압 완전치유	 제니 변 323.383.1917 마약, 도박중독, 우울증말기 완전치유 현재 주방봉사	 김 경수 213.248.7379 당뇨, 담석말기 완전치유	 정영호 집사 213.364.4477 천식, 가래기침, 대상포진 완전치유	 여호수아 변 818.288.3992 불면증, 시력이상W 비준, 무릎 관절염, 아토피 완전치유
 이 승호(다윗) 213.570.0818 우울증, 대인기피증 완전치유 현재 찬양사역 봉사	 정 민애 213.382.3258 우울증, 도박 완전치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치유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365일 예배안내 오전 5시 30분 / 낮 11시 / 저녁 7시

각종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벌몬트+피코)
24시간 전화 213-382-3258/ 213-725-3007
 주소 1331 S.Vermont Ave. L.A. CA 90006

구원론 잘 모르면 이단 탐탄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원, 제7회 이단 대책 및 예방세미나



한선희 목사가 이단 대책 및 예방에 대해 신천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원(회장 한선희 목사)가 제7회 이단 대책 및 예방세미나를 16일 오후 4시에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사는 한선희 목사가 나서서 △이단의 특성 △이단 분별의 기준 △이단에 끌리는 요인 △이단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 △이단을 예방하는 길 △신천지 이단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 목사는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 “신천지의 이단교리를 보면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다”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구원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현주소이다”라고 했다.

그는 “구원론이 확실하면 이단에 빠질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단의 특성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유일한 말씀임을 부인하거나 가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한다 △교주를 절대 신격화 한다 △삼위일체의 진리를 부인한다 △성경에도 없는 거짓 채립 낱말을 예언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롱한다 등을 꼽았다.

이단 분별의 기준으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거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부인 △신구약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다른 복음에 권위를 부여해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계속성을 주장 △기성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미혹 △그들의 지도자를 신격화 △불건전한 신비주의 △성경 해석에 있어 오류 등을 제시했다.

한 목사는 이단에 끌리는 요인으로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

지나친 열심에서 오는 부작용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영적 우월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 △사육과 더러운 이익 추구 △호기심이나 교만 등을 꼽았다.

그는 “신천지의 교과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의 3단계 코스로 각각 2개월씩 소요된다”며 “신천지의 기관으로는 무료성경신학원, 평신도신학원, 시온기독교신학원, 복음방, 러빙피플, 기독교교육협의회, 원로목사회, 원로장로협의회 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충성하던 성도가 갑자기 목회자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 △충성하던 성도가 갑자기 교회를 이유 없이 결석하기 시작 △몇개월간 교회도 안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충성하기 시작 △자신의 집이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목사의 설교, 목사의 성경 지식에 대해 은근히 불만을 터뜨림 △대학부나 청년부에 갑자기 나타나 열심히 충성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그들의 전략은 △가족이나 지인 전도 △공공장소에서 교인에게 접근해 상대의 연락처 확보 △어디서나 자연스런 만남으로 끈끈한 교제 △위장 세미나로 미혹 △교회에 추수꾼을 잠입시켜 성도를 미혹 △정통교회로 위장 등이 있다.

한선희 목사는 “이단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회가 정통 교리를 성도들에게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단 대책 및 예방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마스 맹 기자

예장통합 제97회 총회 “역사적 정통성 위에 서자”

손달익 총회장 ‘10대 성취 과업’ 발표



손달익 신임 총회장이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예장 통합은 17일부터 20일까지 소망교회에서 제97회 총회를 열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모은 목사부총회장에는 김동엽 목사가 선출됐다. 총회장 직은 부총회장 손달익 목사가 총회 대의원들의 박수 속에 승계했다. 장로부총회장 전계옥 장로(순서노회 영송교회)는 1,488표 중 1,323표를 얻어 무난히 당선됐다.

태풍 속에서도 총대 1,500명 중 100%에 가까운 1,498명이 등록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는 유효표 1,491표 중 기호 3번 김동엽 후보(영등포노회 목민교회)가 564표로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해 387표를 얻은 이승영 목사(서울강동노회 새벽교회)와 결선투표를 치렀다. 기호 2번 임은빈 목사(서울동남노회 동부제일교회)는 363표, 기호 1번 민경실 목사(서울서남노회 광진교회)는 176표를 각각 득표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계속된 2차 투표 결과 총 1,459표 중 김동엽 후보가 822표를 얻어, 631표를 얻은 이승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선거 후 총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새로이 취임한 손달익 총회장은 “저에게 과분한 직무이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은혜였듯 또다시 이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담대히 십자가를 감당하려 한다”며 “하

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서문교회와 저를 이끌어주신 이규호 증경총회장님, 평양노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손 총회장은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헌신해 온 총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명을 깨달아 역사적인 정통성 위에 굳게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학교와 신학교육에 혁신적인 조치들을 단행하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께 희망과 용기, 자신감을 북돋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란스러워진 연합사업들을 에큐메니칼 원칙에 입각해 잘 정비하고 내년 WCC 총회도 잘 준비하겠다”며 “교회를 섬기는 노회와 총회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창의적이며 신뢰받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목사부총회장은 “성실과 나눔으로 총회를 섬기고, 겸허한 자세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현장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작은 자들의 벗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계옥 장로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와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자의 분이 되겠다”고 전했다.

총회 둘째날 저녁회무 시간에는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감사예배가 개최됐다.

이 예배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 한국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을 받아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기획됐다.

예배의 기본적 방향은 △한국적 문화를 가급적 반영하고 △초대 한국교회가 그러했듯 애국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예배 집례에 있어 다양한 지체가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장로교 전통을 따른 예배순서를 기본으로 했다. 또 국내·해외 교회 대표들의 축사와 목사·교회·선교사 표창은 2부 순서로 진행해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만 집중하도록 했다.

이대웅 기자

박정원 총회장 “한기총 탈퇴할 이유 찾지 못했다”

취임 기자회견 갖고 WCC 등 현안에 입장 피력

예장 고신 제62회 정기총회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고신교회 회복과 성장(행1:12-14)’이라는 주제로, 17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고 있다.

새 총회장이 된 박정원 목사(대연중앙교회, 동부산노회)가 총회 첫날 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예장 합신과의 통합 문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교연(한국교회연합)과의 관계설정 문제, WCC 부산총회 대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먼저 박정원 목사는 예장 합신과의 통합에 대해, “합신과 세 번의 정규모임을 갖고, 헌법, 신학교, 실천행사들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다. 각 교단이 서로의 헌법을 놓고 연구해왔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바로 조직을 합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먼저 서로의 행사에 임원들을 보내 축하하는 등 교류 노력을 펼쳐왔다. 이런 교류를 통해 담이 허물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학적으로도 고신과 합신의 기조(基調)가 모두 박윤선 박사에게서 문 제될 것이 없다. 약간의 차이점은 서로 연구하고 조율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기총과 한교연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기총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조사가 이뤄졌었는데, 아직은 한기총을 탈퇴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기총에서 법적으로 빠져나온 적이 없으며, 한교연에 가입했던 적도 없다. 직전 총회장과 임원 일부가 한교연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우리 교단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했다. 직전 총회장님에게도 ‘총회장님



박정원 신임 총회장

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교단의 대책과 정책이 없는데 갈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단지 직전 총회장과 몇몇 임원들이 임의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번 총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WCC 부산총회와 관련, “이번 총회에도 안건이 올라와 있다. 공교롭게도 WCC 총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게 됐다. WCC는 분명 종교다원주의이며 제2의 신사참배와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고 WCC를 대놓고 못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향후 개혁주의 교단들, 특히 합동과 연대해 유인물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 각 교회에 배포하여 WCC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교회들은 WCC에 현혹되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목사의 부친은 교단의 40대 총회장을 지냈던 박윤생 목사다. 박 목사는 “현재 아버지는 자신이 개척했던 2개 교회를 후배들에게 맡기고 3번째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고 계시다. 3번째 교회까지 성장시켜 후배들에게 맡길 계획인데 이는 ‘하나님께 3개 교회를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했기 때문이다. 부친이 총회장이 되셨을 때 내건 슬로건이 ‘3천개 교회 100만 성도운동’이었는데, ‘네가 총회장이 되면 이 일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셨다”고 밝혔다.

신태진 기자

정준모 총회장 “개혁, 갱신, 부흥운동 전개”

취임사 통해 ‘10대 성취 과업’ 발표



예장 합동 제97회 정기총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성명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장 합동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새 총회장에 오른 정준모 목사(대구 성명교회)가 취임사를 통해 “10대 성취 과업”을 발표했다.

정 목사는 “새로운 100년의 비전 성취를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10대 성취 과업을 발표했다.

10대 과업은 ▲WCC신학과 운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칼빈주의 개혁 신학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선포 ▲총회 개혁을 위한 3R(개혁, 갱신, 부흥) 운동 전개 ▲총회본부의 투명한 운영 ▲치리회 권징의 권위 회복 ▲이단과 전쟁 선포 ▲교단 내의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종식 ▲총회 산하 기관의 활성화 ▲미지립교회 자립 위한 대책 마련 ▲총회세계선교회(GMS)

문제 해결 ▲활발한 모금과 투명한 지출 등이다.

특히 정 목사는 “교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주제로 분기별, 권역별로 총회발전토론회를 개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총회발전 기획위원회를 조직해 향후 5년간 총회 발전을 위한 장기 계획과 구체적 지침서를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은 첫날 저녁 7시 30분 속회 후 신임원 교체식을 진행했고 총회 상비부장 선거를 진행한 뒤 정회했다.

총회장 정준모 목사는 대구교육대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 이후 총신

대 신학대학원(M.Div.), 일반대학원(Th.M.)을 거쳐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Th.M.)에서 유학하고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뒤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천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부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총회 정치 부장과 세계선교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총신대학교 재단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편, 장로부총회장에 남상훈 장로(삼례동부교회), 서기에 김형국 목사(하양교회), 회록서기에 김재호 목사(동산교회), 부회록서기에 최우식 목사(목포예순교회), 회계에 윤선용 장로(대흥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김진영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CI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월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갈릴리안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ocrdm.org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님의 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의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의 빛 선교교회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예배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청운교회
 선교에 초음소, 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지역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지출원사업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재지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들이주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뉴욕교협 39회기 과제는 교계의 화합

전원 단독 후보, 총회에서 과반 득표 넘으면 당선



회장 후보 김중훈 목사, 부회장 후보 김승희 목사, 평신도 부회장 후보 이대연 장로

지난해 뉴욕교협 38회기가 여우극절 끝에 출범한 이후 38회기는 어려움 가운데서 뉴욕 교협으로는 처음으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뉴욕의 교회들을 섬기는 노력을 해 왔다. 또한 헌법을 개정하고 회관 이전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전 회기에서 이루지 못했던 주요 사업들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오는 39회기에 주어지는 가장 큰 과제는 38회기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교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4일로 마감된 뉴욕교협 차기 임원 후보 등록자들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임후보 소감과 함께 뉴욕교협의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물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회장 후보에 김중훈 목사, 부회장 후보에 김승희 목사, 평신도 부회장에 이대연 장로가 각각 임후보했으며 모두 단독 임후보로 정기총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이 확정된다.

먼저 김중훈 목사는 회장 임후보 소감과 관련, "교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책임자의 자리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뉴욕 지역이 해외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중추적인 위치에 있기에 선배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의 많은 수고를 기억하고 잘 지키며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나가고 흐름

을 다음에도 잘 넘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주요 사업과 관련해 "무엇보다 회관 이전 건이 추진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가 39회기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회장이 된다면 회관 이전 문제가 좋은 결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계 화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기에 화합은 복음 안에서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의 자리를 허락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부회장 후보 김승희 목사는 39회기에는 무엇보다 교계의 화합이 우선된 과제라는 데에 동의하면서 "화합을 위해 겸손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회장 임후보자로서 39회기 에 대한 구상은 후보 토론회를 통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평신도 부회장에 출마한 이대연 장로는 "장로서제가 임후보한 직책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새로 선출되는 회장님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일에 충실할 것"이라며 "교협 화합은 대승적인 일이기에는 여기에는 이론편이 없다고 생각하며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원 기자

청년들 참여 돋보인 매치스트라이크

메릴랜드 청년연합 준비모임으로 Fire Up!



매치스트라이크 대표 송창수 전도사

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한인교회와 타민족 교회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흠뻑 젖는 집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말씀을 전한 하노버 하비스트교회 전국전 목사는 마가복음 2장을 본문으로 '연합의 힘'을 강조하면서 "네 사람이 협력해 한 사람의 죄사함을 얻어낸 것 같이 낙심한 친구, 부모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번 매치스트라이크 모임이 되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일이다. 연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힘을 다해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자"고 격려했다.

설교 말씀이 끝난 후 송창수 전도사의 인도로 팀별 사역 소개가 이어졌으며, 원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율됐다. 매치스트라이크 총 프로듀서 흥재완 집사(아름다운감리교회)는 "12년 전과 비교해 청년들의 문화적, 의식적 변화가 크다. 세대별 다양성을 잘 유지하며 집회가 이뤄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특히 100명 이하 작은 교회에서 참석하는 이들이 많다. 팀워크 훈련, 헌신 훈련, 기도 훈련을 배우고, 음향 및 다양한 기술을 배워 개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이번 집회는 매치스트라이크와 메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청년연합회(청년 회장 이태우)가 공동 주최하며, 11월 3일 오후 6시 미국 브릿지웨이교회에서 개최된다. 약 1,500명 참석을 예상하고 있다. 집회는 18세~25세 청년을 중심으로 사역팀이 구성되지만, 참석의 나이 제한은 없다.

권나라 기자

골수 일치자 찾은 승리, 오는 26일 수술



최승리 양

난치성 희귀병으로 골수기증캠페인을 벌여온 최승리 양이 오는 26일 골수이식을 받는다. 지난달 22일 전 미조형모세포은행 협회(이하 NMOP)로부터 87.5%의 골수 일치자가 있음을 통보 받았던 승리 양의 어머니 류영지 씨는 "승리가 그간 감기로 인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고 이식 전 받는 건강검진에도 무사히 통과해 골수이식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

다"고 밝혔다.

류 씨는 또 "이식 자체는 헌혈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돼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식 전 항암·방사선 치료가 힘들며 이식 후에도 여러가지 부작용과 면역 거부반응, 합병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을 부탁했다.

류 씨는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3,618명에 이르는 한인이 골수기증에 참여해 주었다. 그간 참여해 준 한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골수기증캠페인으로 인해 최승리 양은 NMOP에서 등록 및 홍보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는 2012 Awareness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앤더슨 김 기자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가을 햇산삼이
나왔어요

HQ
山蔘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나니 협력 업체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도매 한인 최대유통회사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펜실베이니아주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산삼수령	뿌리당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 120년근)	1호:23-35그램 2호:15-22그램	20-30뿌리	\$1,200/LB
중 3호-4호 Mixed (20년- 60년근)	3호:9-14그램 4호:5-8그램	33-60뿌리	\$9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가격	무게	뿌리 갯수	산삼 수령	중전 무게
\$200	9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년근	70그램
\$600	250그램	20뿌리-30뿌리	평균 50년근	200그램

한국에는 매회 300그램까지 합법적인 면세품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한국은 미국산삼이 이곳보다 약 50배 가량 더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200 / 소매가 \$1,000
70그램 90그램 / 평균 30년근 15~20 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평균 50년근 20~30 뿌리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맥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8. 각종 간질(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15. 만성피로나 허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증기를 식혀줌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함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 진다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건강상담 및 문의: Dr. 최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BOOK

신간 추천

용서와 상담

리로이 아덴, 데이비드 G. 베너 | CLC | 3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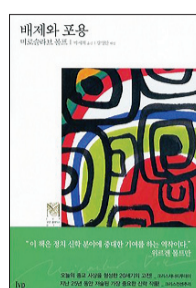
이 책은 죄, 죄책감 그리고 용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과 치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별히 용서는 관계의 핵심으로 죄와 죄책감의 치유를 위한 중심 영역이 된다. 저자들은 신학과 심리학적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의미있는 관점들을 제시한다.



배제와 포용

미로슬라브 볼프 | IVP | 560쪽

이 책은 우리 문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신학적 관점을 제시한 작품으로, 볼프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문명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 중 하나인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를 탐구한다. 우리가 가진 상호 배제의 문명이 타자의 포용을 통해 궁극적 화해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공동체로 사는 이유

에버하르트 아놀드 | 예수전도단 | 1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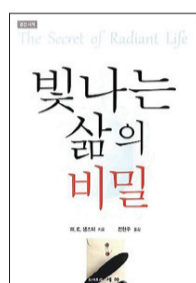
이 책에서 에버하르트는 자신이 걸었으며, 다음 세대가 걸어야 할 길을 진술하고 담담하게 전달한다. 그는 공동체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임을 이야기한다.



빛나는 삶의 비밀

W. E. 생스터/전현주 | 세복 | 331쪽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면 자기중심성, 불안, 열등감, 두려움, 분노, 시기, 불만, 부정적 생각, 고약한 성질, 악한 생각 등으로 범벅된 죄성이 보인다. 저자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여 성경적 삶에 순종하며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길을 제시한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문답식으로 교회교육 교재 사용 가능한 <기독교 강요>

한국청교도연구소장 김홍만 박사 지음

한국청교도연구소장 김홍만 박사가 (52주 문답 기독교 강요)를 펴냈다. 저자는 국제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복음의 위선자를 깨워라> (이상 지평서원) 등 다수를 저술했다.

개혁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고전 중 하나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이지만, 방대한 분량 때문에 평신도들은 책을 펴들기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홍만 박사는 교회에서 매주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핵심 부분만을 문답 형식으로 편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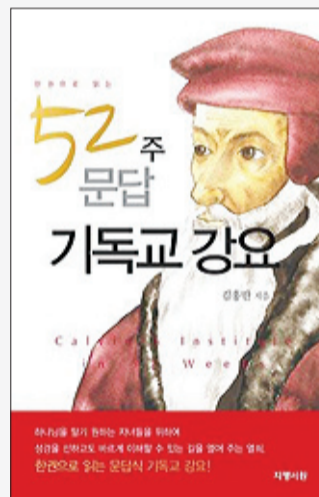
그는 <기독교 강요>에 대해 "개혁교회들이 따라야 할 진리, 곧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체계를 처음으로 조직적 형태로 묶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구원과 복음을 비롯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교리들을 구체적·체계적

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500년 전 작품이지만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 전체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과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얻을 수 있고, 바른 교리의 이해를 통해 바른 영적 체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이라며 "나아가 잘못된 가르침들이 흥

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은 서문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 이어 1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2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3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식으로서 성령의 사역, 4부 외적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홍만 | 지평서원 | 304쪽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터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마감)/3월 11일(신청가능)/4월 1일(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교회에서 단체로 신청하시면 단체 특별 할인됩니다
성지연구소에서 제공한 성지순례 지도 & 자료집을 드립니다

<기자의 눈> 탕자인가? 밀알인가?

권나라 기자
워싱턴 기독교일보



화제의 유튜브 동영상 (Sad: Ungrateful Daughter Neglects Her Deaf Father)

이 영상이 주는 감동을 벼어리 아버지, 사춘기 소녀의 방황이란 짧은 말로 표현하기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마지막 영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다.
말 못하는 아버지에 하나님 아버지

가 투영된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2천년 전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성령에 힘입은 수많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알리길 원하신다.
우리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때로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실패와 좌절에 무너지며 하나님을 오해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재산 중에 내 분깃을 주 소서' 하며 떠나는 탕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은 재산으로, 세속적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현대 교회에도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교회가 클수록 목회가 성공한 것으로 여기며 더 큰 교회를 위해 달려가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다.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큰 교회=성공'이란 세속적 가치관이 스며들어온 단면이기도 하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목소리에 떠내려가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죽여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 그

안타까운 자화상이 이 영상과 함께 오버랩 된다.
한국은 2000년도 이후 한해 15,000 여명이 자살하는 자살 강국이다.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 70~80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청년들의 경우는 자살로 죽는 수치가 교통사고의 2배로 사망 원인 1위에 달할 정도다. 이 수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가를 보여준다. 이들이 생명을 끊을 만큼 절망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들이 일으켜 세울 힘은 어디에 있는가?
딸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걸모습만 바라봤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절망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딸의 뺨에서 치유된 한 방울 눈물이 흐른다. 사랑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임을, 자

신의 가치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음을, 그 때야야 깨닫는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성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 예수님은 진리를 구하는 이성적인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한복음 12:24-25)"
한 때 탕자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환경과 세상의 잣대에 휩쓸리지 말고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생명은 생명으로 통한다. 지금도 가슴을 치며,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도움을 줄 한 사람을 찾는 이 아버지께 손을 내미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김영빈 목사
세계비전교회

데 있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을 좋아 하는 데 있다." -Sir James Matthew Barrie, 작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할 때 더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Ingrid Bergmann, 배우
"행복은 다른 사람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다." -Georges Bernanos, 작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 -Dietrich Bonhoeffer, 신학자
행복과 축복은 늘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축복 없는 행복은 없으며 행복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참 행복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랑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잠언 10:22)"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이 불행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복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또한 이 세상에는 행복에 관한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앨버트 슈바이처
"행복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내가 의존하는 것



김연규 목사
뉴욕비전교회

백두산 통일기도회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있어 뉴욕의 스테튼아일랜드에 다녀왔다. 평소 잘 가지 않던 곳이라 생소하기도 했지만 가끔은 지나갔던 길이라서 그런지 낯설지는 않았다.
갈 때는 찾아가는 길이라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navigation)에서 나오는 음성엔 순종하며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기억이 난다.
돌아올 때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나는 자동차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돌아왔고 마침 길에 차가 많아 길이 꽉 막혀 있어서 평소 같으면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는 길을 약 2시간 이상 걸려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운전하는 내내 지루하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창 밖을 내다보며 해안도로 옆으로 장대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와 절경, 그리고 맨하탄이 자랑하는 고층건물이 만들어 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자동차를 타고 스테튼아일랜드를 오고 가는 데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가고 올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필자가 갈 때는 네비게이션이 가리켜 주는 대로 따라갔다. 올 때도 마찬가지로 네비게이션이 가리켜 주는 대로 따라왔다. 그런데 갈 때는 잘 갔지만 돌아올 때는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아무 의심 없이 자동차에 달린 기계에 의존해서 갔다 왔다.
이번 스테튼아일랜드의 여정으로 깨달은 바가 컸고 많은 감사 제목을

찾았다. 평소엔 자동차로 어느 목적지를 갈 때 길에 차가 많아든지 아니면 사고나 공사로 인해서 많은 번수가 생겨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기억으로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대개 평소엔 길이 많이 막힌 적이 별로 없고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탄한 여정으로 오고 갔던 기억에 평소엔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차로 꽉 막힌 고속도로를 지나가노라니 시간 소비와 체력 소비는 물론 연료 소비 또한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런데 평소엔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운행을 했던 생각을 하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한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때로는 차가 몇 대일이 길 이 뿔뿔려 탄탄대로를 지날 때도 있고, 차가 많아 길이 막혀 서행할 때도 있다.
때론 차 사고나 공사로 인해 우회해야 하거나 도로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여정도 이와 같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인생이 매사에 어려움 없이 순리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건강문제, 사업문제, 신분문제, 자녀문제 등 수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로 때론 지체할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평안하게 해주셨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며, 복을 더하셨고, 건강하게 하셨으며, 모든 일에 흥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만을 의지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 권력과 학식, 지식과 자신의 논리에 의존해 살아왔다.
이를 생각하면 역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필요한 어떤 것에 의지하면 길이 막혀 차가 서행하는 일이 생길듯, 인생의 여정도 서행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어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맡기고 살아가면 늘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막힘없이 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한 마디 외침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나이다"였다.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불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

제6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아름다운 찬양제에 많이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 ♪ 인랜드한인교회(지휘:이재경)
- ♪ 한소망교회(지휘:홍유현)
- ♪ 충현선교교회(지휘:이은영)
- ♪ 나성 성결교회(지휘:신영안)
- ♪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김원제)
- ♪ 할렐루야남성중찬단(지휘:이해익)
- ♪ 미주평안교회살롬남성중찬단(지휘:한홍운)
- ♪ Joyful 선교중찬단(지휘:서문욱)
- ♪ 글로리아한인합창단(지휘:권혁래)
- ♪ 세계비전교회여성성가대(지휘:황영옥)
- ♪ USAMA SAXOPHONE ORCHESTRA(지휘:이재욱)
- ♪ 미주여성코랄(지휘:오성애)

• 일 시 2012년 9월 23일(주일) 오후 6시

• 장 소 충현선교교회(민종기 목사)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el, 818,549,9191 Fax, 818,549,9199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홍순헌 장로 (213)304-9191 / (909)319-2158

가치는 어떻게 부여되는가?

덴마크의 코펜하겐 공항은 1999년 그린란드의 빙원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빙원에서 채굴한 얼음들을 4각형의 각진 얼음으로 쪼개어 VIP라운지와 각 항공사 우수 고객에게 제공했습니다. 그 얼음에 담긴 이야기 한 구절을 쓴 카드와 함께 말합니다. "이 얼음에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의 공기, 즉 태고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김지성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코펜하겐 공항의 이 마케팅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수천 년 전의 공기와 물로 만들어진 얼음조각을 접하는 즐거움에 유럽의 여행객은 일부러라도 코펜하겐 공항을 들렀습니다. 얼음 자체의 가치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태고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얼음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숫자보다 관광객의 숫자가 더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한해에도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자연경관이 빼어나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멋진 경치는 관광산업 선

진국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관광산업 선진국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는 아닌 듯 싶습니다. 만약 경치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면 빼어난 자연경관이 널려있는 미국과 유럽의 관광객들은 이스라엘을 찾는 즉시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이스라엘을 찾는 이유는 성경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의 주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역사와 예수님 행적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섭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중고품은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나 중고품임에도 새 제품보다 수천수만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예도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사용한 제품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펜, 가방, 일상 도구들,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했던 의류나 생활필수품들, 유명 야구선수에게 의해 날려진 홈런볼은 상상을 초월하는 웃돈이 붙어서 판매됩니다. 새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부여된 중고 물품. 그렇다면 가치는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요?

가치는 결국 스토리에서 옵니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스토리,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게 해 주는 스토리. 스토리가 담길 때 가치가 부여됩니다.

가치를 품은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 속에는 모든 사람이 감동할 만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당신의 삶을 멋지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요? 그것이 있다면 당신은 높은 가치를 품고 사는 인생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것도 없다면,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신학적 오류와 이단(5)



신현국목사
에반겔리아대 총장

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이단을 대면했을 때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들이 그들의 교리를 역설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성경구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교리를 성경구절로 증명하려 하나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구절을 엄밀하게 검토하면 그들의 설명이 허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은 성경 전후 문맥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교리에 적용되는 구절만 단편적으로 인용한다.

이단은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는 데 강한 열정을 지닌다. 여호와의증인은 1만 명이 넘는 전도요원을 활용하며, 2명씩 짝지어 방문전도를 하고 시간의 십일조를 전도에 바친다. 방문전도가 중심이나 그들은 직장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동료나 상사를 불문하고 그들의 교설을 전한다.

몰몬교도 남성은 2년을 선교사업에 바쳐야 하며 그들은 계획적인 교세확장, 중앙지원적인 교회당 설립을 통해 유타주 주변에 있는 주들에서도 교세를 늘려나가고 있다.

이단은 또한 그들의 교세 확장을 위해 잡지, 신문, 서적, 라디오, 텔레비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여호와의증인은 5만여 명의 신도들이 160여 개 언어로 된 잡지(〈파수대〉, 〈깨어라〉 등)를 270개 지역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육체적 부활, 가권적 재판심판에 대한 부정이다. 또한, 이들은 그들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70회에 걸쳐 성경 번역을 시도했다. 안식교는 44개의 출판사를 갖고 있으며, 220여 개의 언어로 된 서적을 출판하고 있다.

이단은 양떼를 미혹하는 무리이며 거짓 선지자들이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크리스천은 이들을 경계하는 동시에 이단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 복음화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이들의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크리스천들은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충실히 공급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한다. (계속)

이단은 불건전한 신비행위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24:24, 요일2:18)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 최면술, 심령현상, 영접자 치료술, 마법 주문술, 신비현상 등 체감적인 현상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이단은 악령의 역사나 최면술, 비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기적현상을 연출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단들의 신비 현상, 기적 현상의 연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마인드 컨트롤 유형이며, Christian Science의 Mind cur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백마술, 심령술, 영접자 치료술 등 악령의 역사에 근거를 둔 유형이다. 심령술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 필리핀 사람은 외과수술도 구 없이 반물입경 상태로 유사수술을 하며, 의학적 수련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한 브라질 사람은 마취제, 소독제 없이 녹슨 칼로 수술하며 절개 부위를 꿰매지도 않는다. 이단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신비현상이나 이적을 행하며,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단들은 비성경적이며 비윤리적이나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이고 분명한 전략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단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있다. 이단에 속한 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믿는 교리가 가장 우월하다고 확신한다.(The Four Major Cults, Hoekema.p.2)

이들의 교리에 대한 확신은 이단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성경만이 인간 마음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지만,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고 성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저와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은 자동차 운전기록이 매우 좋습니다. 차량국에서 그의 깨끗한 기록에 놀랄 정도입니다. 그 목사님의 운전면허증은 보관용일 뿐 전혀 그 밖의 용도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만 받으셨지 그 후 한번도 운전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같이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운전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차만 타면 즐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습니다.



구기조목사
임마누엘복음선교회 대표

사람이 하루의 길을 가는 중에 평탄한 길과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게 마련이고 비도 만날 수 있고 눈도 만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시조의 범죄 이후 인간의 인생 행로에는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된 환자가 베데스다 못가에서 자신의 고질병을 고쳐 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물이 가끔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 다. 하지만 그 사람은 먼저 뛰어 들어갈 힘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불행한 인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 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

간의 모든 죄와 비애를 해결해 주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열망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며 거절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청교도 신앙이란 먼저 교회를 세우고 다음은 학교, 그리고 자기 집을 세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때 미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전 미국 인구의 96%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성경과목을 학교 필수과목에서 제외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에는 공산주의 이론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놀려 사는 모든 인간을 억압속에서 해방시킨다는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찬동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통치는 이론과는 달리 모든 국민이 억압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 이론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필요로 하면 채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필요로 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무거운 문제뿐 아니라 영생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HEALTH & LIFE

HEALTH & LIFE



몸에 좋은 이탈리아 요리, 한번 배워 보실래요?

삶은 쿠킹이다 “맛의 창조, 맛의 나눔”

뜨뜻한 프라이팬 위에 올려진 마늘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젠 파스타 면을 삶은 차레다.

“커다란 냄비에 파스타 양의 10배 정도의 물을 부으세요.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넣으면 졸기 쉽거든요.”

요리 선생님이 나선 미슐 조 셰프의 멘트를 받아 적느라 5명의 주부들은 분주히 손을 놀린다. 다들 하나라도 놓칠새라 ‘초집중 모드’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굵은 소금을 한 큰 술 넣으세요. 그러면 면이 속까지 익고, 나중에 불지 않습니다.”

12일 오전 11시,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자리 잡은 미슐 조(53) 셰프의 집에서 웃음꽃이 피어 올랐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이탈리아 쿠킹 클래스. 이날 메뉴는 단호박소스 스파게티와 이탈리아 가지찜, 파마산 리조또다. 웰빙(well-being) 트렌드에 발맞춰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팔을 걷어부친 수강생들. 이들은 저마다 사는 곳도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누군가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통하는 듯 했다.

요리 선생님이 나선 미슐 조 셰프는 이탈리아 피에몬테에 위치한 I.C.I.F 마스터 코스와 베이징국제요리학교에서 수학한 후 한국서 외식프랜차이즈 셰프, 이사 등을 역임하며 메뉴 개발과 종업원 교육 등 20여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해 왔다. 도미 후 워싱턴 D.C. 상원회관(Senate House)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근무했고, 현재 부에나팍에서 쿠킹 클래스를 운영 중이다.

○레시피 나누는 후덕 인식

셰프에 따라선 자신만의 레시피라며 공개하길 꺼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래서 더욱 셰프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일지도 모른다. 한국서 후배 조리사들을 엄격하게 훈계하던 게 버릇이 되어 버린 조 셰프도 처음엔 범접하기 어려운 딱딱하고 근엄한 캐릭터였다. 하지만 연륜이 더하고 주부들과 소통하다 보니 어느새 친근하고 푸근한 아줌마가 다 됐다. 그녀는 레시피 나누는 걸 아까워 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도 지장이 안 되면 누군가 레시피를 뽑아 달라 요청하면 뽑아 줘요. 요리에 대해 ‘내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사실 대부분의 이탈리아 요리들은 난이도가 높다. 하지만 조 셰프는 ‘이지 쿠킹 클래스’를 따로 마련해 일반인들도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위주로 눈높이 교육에 힘쓴다. 그래서인지 요즘 쿠킹 클래스에 대한 주부들의 반응이 뜨겁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끝난 후 수다 떨면서 밥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일상에 지친 주부들 예겐 이만한 놀이터가 없다.

조 셰프는 요리를 사랑하는 주부들과 소통하는 걸 즐긴다. 요리를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그만의 철학을 드러낸다. 그녀가 생각하는 이탈리아 요리란 무엇보다 ‘웰빙’이다.

“남들은 이탈리아 요리하면, 치즈 많이 쓰고 올리브유 많이 쓰니 기름지다고들 하지만, 사실 건강식 재료들만 사용하기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요리예요.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제대로 배워보면 그야말로 좋은 요리죠.”

○교회 2세 위해 식사 마련하는 재미 쏠쏠

요즘 조 셰프예겐 또 하나의 재미가 있다. 그녀가 섬기고 있는 예진교회(브레아 소재)의 70여명 성도들을 위한 식사를 마련하는 재미다. 때론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2세들을 배려해 샐러드를 비롯한 양식 메뉴를 하나 정해 가져간다. 바쁜 스케줄 탓에 매주 봉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 양을 법도 한데, 피곤한 기색 없이 마냥 즐거운 듯 “아이들이 맛있다고 함박웃음 지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다음은 그가 소개하는 웰빙 ‘단호박소스 스파게티’ 레시피다.

- 올리브오일..... 2큰술
- 마늘 10개
- 양파 반개
- 스파게티(펜네) 반파운드
- 단호박 소스 5컵
- 벨페퍼 1/4컵
- 아스파라거스 반컵
- 그린 빈 반컵
- 호두 반컵
- 소금과 후추 필요량

단호박 크림소스 만들기



탕 2큰술, 월계수잎 필요량

1_ 달구어진 소스 팬에 분량의 버터를 넣고 어느 정도 녹았다 싶으면 밀가루를 넣어 약불에 타지 않도록 잘 볶아준다.

2_ 준비해 놓은 화이트 와인과 치킨 브로스, 월계수 잎을 넣고 중불에 5분 정도 끓여 준다.

3_ 마트에서 구입한 단호박 페이스트를 넣고 불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분량의 우유와 설탕을 넣고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조린다.

만들기

- 1_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 슬라이스가 골든 브라운 색깔이 될 때까지 조린다.
- 2_ 미리 썰어 놓은 양파를 먼저 넣고 향이 나도록 볶아 준다.
- 3_ 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미리 삶아 놓은 스파게티를 넣은 다음 준비해 둔 단호박 크림소스를 넣고 볶는다.
- 4_ 마지막으로 나머지 야채, 호두를 넣은 다음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후 완성한다.

○미슐 조 셰프의 쿠킹 클래스란?

미슐 조 셰프와 함께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 보는 홈쿠킹 클래스 강좌다.

이 클래스에선 기존의 재료를 이용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10명 이하의 소수 정예로 개설되며 강좌는 시연과 식사로 이루어진다. 시간은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강좌는 기본 12주씩 4번으로 구성되며, 총 기간은 약 12개월이다. 간단한 간식에서부터 한식, 파타상차림, 정통 이탈리아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수강료는 12주에 500불.

문의전화 (562)896-3090
이메일 kang4890@hanmail.net



COVER STORY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세계성경장로교회 김성전 장로 이야기

그는 수다쟁이다. 아마도 마음이 보드라운, 따뜻한 사람이라서일까. 옆에 누군가 있을라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상대가 비단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초면이라도 말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 상대방의 지적 욕구를 채워준다.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그것도 재능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말하는 재주를 비지니스에 접목시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멀리서 여행 온 객들을 맞이하는 걸 업으로 삼고, LA 유일의 허가 받은 보딩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김성전 장로 이야기다.

장차 호텔리어가 꿈인 그는 올해로 쉰 다섯을 맞았다. 20여년째 한 교회만을 섬겨오고 있는 의미파다.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가 그의 신앙적 멘토다.

상해임시정부 요원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던 부친과 산부인과 의사인 모친 슬하에서 4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 세 형들은 모두 의사. 그도 한때 집안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대에 지원했지만, '주먹쟁', '학교 어깨' 소릴 듣던 혈기 왕성한 학생시절을 보낸 그에게 운명의 신은 비껴갔다. 결국 보기 좋게 낙방한 것. 실망을 안겨드린 건 물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고, 한동안 반항심과 좌절감에 빠져 건달 같은 생활에 빠지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몰랐던 터였다.

그러다 미국 유학 중이던 친구의 권유로 도미의 꿈을 꾸게 됐다. 당시만 해도 학부, 대학원을 통틀어 한국 유학생이 10명도 채 안 되던 때였다. 부모님께 드렸던 실망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 유학 준비를 마쳤고, UC 리버사이드에 당당히 합격해 유학길에 오르게 됐다. "지금 돌아보면 30년 전 그렇게 미국에 온 것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까지 된 계기가 됐다"고 그는 말한다.

1985년. 그에겐 잊을 수 없는 해였다. 남자 중의 남자이자

뺏 속까지 존경했던 부친이 소천하시던 날, 하관 예배 도중 예수님을 만난 것. 이날 집례를 맡았던 김문희 목사(서울대신교회)가 읊조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딤후 4:7-8)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깃들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
헌날 패싸움에 휘말려 뺏
하면 경찰서에 붙들려
갔던 일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갔다. 형제들 중 유일한 총각이자 막내였던 탓에



◆김성전 장로는 누구?

LA 유일의 허가 받은 정식 보딩하우스 3개를 운영 중인 사업가다. 1호점 프라임 게스트 하우스를 비롯해 2호점 원저하우스, 3호점 옥스포드 맨션을 소유하고 있다. 아내 김선희 권사와 미육군장교로 근무하며 롱비치에 위치한 고등학교 수영팀 헤드코치와 주니어 R.O.T.C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 재형, 그리고 UC 산타크루즈 4학년에 재학중인 딸 지나가 있다. 세계성경장로교회 강신권 목사를 신앙적 멘토로 이 교회를 20여년째 섬겨오고 있으며, 5년 전 장로가 됐다.

형들보다 감절은 많이 울었던 듯. 그렇게 부친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생전 효도 한번 못해드린 후회에 가슴을 쳤다. 그리고는 훗날 반드시 성공하겠노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집사 직분을 받고 하늘로 떠난 아버지를 본받아 진정한 신앙인이 되겠노라고도 생각했다.

그해 여름. 한국 방문을 위해 올라탄 기내에서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던 지금의 아내 김선희 권사를 만났다. 동석한 유학생 친구의 실수 탓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인해 만나게 됐고, 편지와 전화로 13개월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술이었던 그가 술과 담배를 끊게 된 데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 가정적이었던 그가 아내의 첫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문병차 온 강신권 목사의 기도를 받게 됐고, '첫 아들을 주시면 주조를 다 끊겠다'고 서원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난 후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모든 걸 끊었다. 주위 친구들은 '독종'이라 했지만 그는 "이는 독종이라서가 아니라 정말이지 성령의 역사"였다고. 담배를 끊은 후 금단 현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담임목사로 부터 배운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되뇌며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서서히 믿음이 자라갔다. 삶 가운데 이슬비처럼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몸담고 있던 교회가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 당시 서리집사였던 그는, 새롭게 개척할 교인 77명을 위해 생업을 팽개치고 LA 카운티 내 교회 100여 곳을 찾아다니며 예배당으로 쓸 처소를 구하고자 두 달 여간 찾아 헤메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다 드디어 멋진 미국 루터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땐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다. 당시를 회고하면서 "누군가의 부탁이나

명령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는 고백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회 친교실에서 밥을 해먹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생긴다며 트집을 잡는 미국 루터교인들의 천대에 할 수 없이 그곳을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여러 장로들의 건의로 새성전 구입을 당회에서 결정하고 건축헌금과 작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혹자는 말한다.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이 깃든다'고. 신앙에 죽고 살 것 같았던 교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 당시로는 큰 액수였던 1만불씩 작정한 장로들조차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 사이 담임목사와 성도들은 벌써 한 교회 건물을 두고 에스 크로를 오픈한 상태였고, 기한 내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재정이 넉넉치 못한 교회 형편상 막대한 금액이 남아갈 판이었다. 재정적으로 힘이 될 만한 성도들이 없던 가운데 오랫동안 재정부 일을 담당하는 장립집사였던 그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8)라는 이신득의의 말씀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그래, 기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주께서 바깥으로 내몰기야 하실까."

그는 모친이 마련해 준 첫 집을 식구들조차 모르게 코짜인(집 담보로 보증서는 것)하여 마침내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건축으로 인해 교인들이 많이 떠난 상태에서 건물 월부금은 힘에 겨웠고, 처음 2-3년간 생활비도 없이 교회 건물 월부금부터 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이한 일들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분은 분명한 뜻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나를 이끌어 오셨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의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물론 실패의 고배도 마셨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해 역사하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 현재 그의 아내 김선희 권사는 모 의류회사 부사장으로, 5년 전 장로장립 받은 그는 LA 타운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보딩하우스 3개를 운영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는 짧막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여운을 드리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0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생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유익종 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작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엔진 & 미션 전문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76

오일사용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기간 판매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온! 자동차 연료 커버
\$300 당의 양이온! 원형인산칼슘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을 완화하시는분

(213)323-4547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IOREX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수,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산염,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co.kr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99.6%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추천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질병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장이 좋아 소화생리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문 때까지 치료)

양방/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기 자연적으로 연금관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됩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7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일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웹사이트 제작, 컴퓨터 수리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응답이 없을시 음성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작문의 213.814.134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외,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워싱턴DC 아름다운여인들의모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다



(왼쪽 왼쪽부터)김영란 하프 팀장, 송진아 재무, 박사내 재무, 최순옥 서기. (오른쪽 왼쪽부터) 채수희 홍보부장, 조미현 부회장, 석은옥 회장, 김미나 총무

살 소망이 끊어진 채 재활원에서 살고 있던 중년 한인 남성이 한 한인 봉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회복돼, 현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이 봉사자는 아름다운여인들의모임(회장 석은옥, 이하 아여모) 소속 송진아 재무로, 지난 17일(월) 아여모 창립 6주년 준비모임에서 이 간증을 나눴다.

송 소망이 끊어진 채 재활원에서 살고 있던 중년 한인 남성이 한 한인 봉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통해 회복돼, 현재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다. 이 봉사자는 아름다운여인들의모임(회장 석은옥, 이하 아여모) 소속 송진아 재무로, 지난 17일(월) 아여모 창립 6주년 준비모임에서 이 간증을 나눴다.

이 집사는 회복 후 새벽 기도 중 소명을 받아 워싱턴침례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윤석 집사의 간증이다. “저는 한국에 믿지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중학교 3학년때 미국에 유학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던 중 중고등부 수양회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엢 2:8)”는 말씀으로 구원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다 결혼하고 건축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됐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제 신앙이 나태해지고 살도 게을러져서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스트레스가 심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만난 모든 의사들이 무슨 병인지 찾지 못하고 2년 반 간 고생하다가 가족과도 생이별을 하고 단절된 채 죽을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의사 한 분을 보내 제 병이 ‘쿠싱 디지즈’라는 걸을 알아내고 2011년 4월 페어팩스 병원에서 수술 받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억도 모두 사라져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길도 막막했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심해져 하나님께 감사는 커녕 까맣게 그분을 잊고 재활원에서 말 한마디 안하며 며

리와 수업을 길게 기르고 소망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해 9월 초 과파하다고 병원 전체에 소문이 자자해, 모두가 가 볼 필요 없다고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송 집사님께서 제 방에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대답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와 수업을 자르고 청결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서 기도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잘 못먹고 삶의 의욕도 없는 제게 송 집사님께서 성경공부도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게 돼 식구들과 다시 살 수 있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워싱턴침례대학교에서 행헌에 맞춰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저를 살리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아여모 창립 6주년 축하연회가 9월 21일 오후 6시 조지메이슨정부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여인상 수여식’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크로마하프단의 연주’로 구성된다. 문의 703-298-8475

권나라 기자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개강예배

정태우 교수 한인 최초로 남침례신학교 한국부 학장 임명돼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정태우 학장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의 Statements에 서명했다.

한국부 학장으로 정태우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한국부 박사원 및 온라인 석사원을 담당해 왔으며 남침례신학교들 중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부 학장이 됐다. 한국인의 위상과 긍지, 자부심을 고양시킨 정태우 학장의 임명에 대해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 및 한인들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2012년 가을 학기의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본교한인학생회를 섬길 회장으로 박승호 목사, 총무로 최모호 목사가 선출됐다.

현재 학생수가 200명이 넘는 미드웨스턴 한국박사원은 남침례신학대학원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목회자 양성 전문 교육기관이다. 토마스 멩 기자

제39회 한인의날 축제 기념 태권도대회 열린다

미스월드태권 진선미 선발대회 개최돼...푸짐한 상품 마련



국제 태권도 대회 및 미스 월드 태권 선발대회 포스터

제39회 한인의날축제 기념 국제 태권도대회 및 미스월드태권 진·선·미 선발대회가 10월 6일 오전 8시부터 벌분과 4가에 있는 사토 레크레이션센터(3193 W. 4th St. LA, CA 90020 : Shatto Recreation Center)에서 개최된다. 대회 주회는 한미친선연합회가 하며,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의 후원과 미국태권도연맹(United States Taekwondo Federation : USTF)의 주관으로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한국을 비롯, 중국과 멕시코 등의 나라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미스월드태권 진·선·미 선발대회에는 참가비가 없으며 선발된 진·선·미에게는 왕관을 비롯해 메달과 트로피 그리고 진주 목걸이 등의 푸짐한 기념품이 증정되며 상금도 수여된다. 시상식은 축제 행사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감금자 심사위원장이 직접 시상한다. 이 대회 수익금 일부는 세계선교대

권을 연합회 및 세계선교태권도사관학교의 후원으로 멕시코 선교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스월드태권 진·선·미 선발대회 참가자격은 빨간 띠 이상으로, 1996년 10월 6일 이후 출생자가 자격을 얻으며, 태권도인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고려품세, 그리고 유단자 품세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된다. 문의: 213-245-8178, 323-461-4002

토마스 멩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a man holding a sign that says '지금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Sign up now, 1 month free). The ad lists benefits like unlimited international calls and text messages for \$24.99/month. It also promotes a free upgrade to a smartphone and a My Korea Number. The offer is valid until September 30, 2012. Contact information: 1.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800대(7에이커)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리무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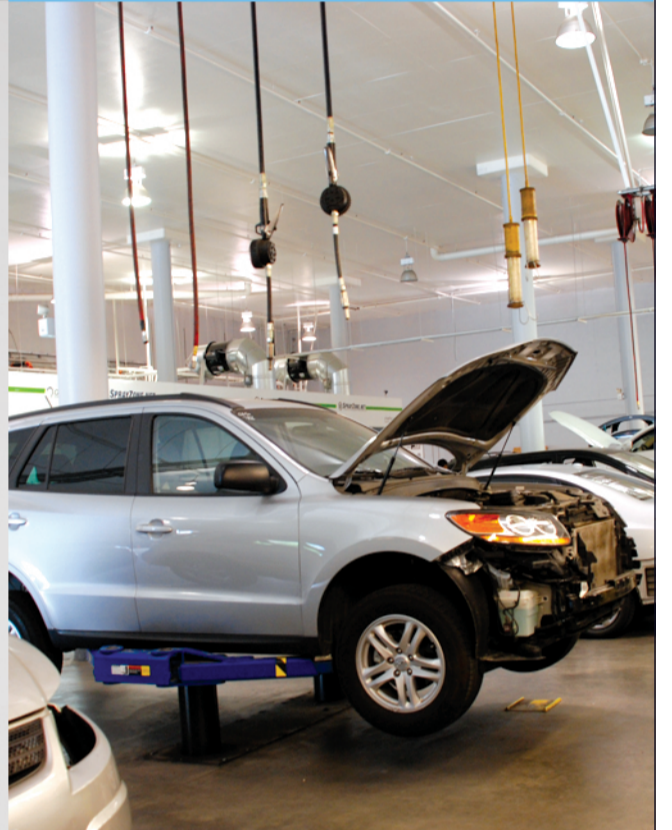
에쿠스를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세계에서
단 한대뿐인 에쿠스 리무진이
모시려합니다.



SUPER STORE

“품격있는 고객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PHHYUNDAI.COM 푸엔테힐스 현대



렌탈 카



평생
무료 세차

CAR WASH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9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9월 1일~30일)



\$579 + TAX(STK.058106)



2013 EQUUS SIGNATUR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60,150 / Residual: \$27,068 / T.D.O: \$5,999
No Security Deposit /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012 GENESIS



\$255 + TAX(STK.207604)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35,260 Residual: \$16,572
T.D.O: \$4,999 /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119 + TAX(STK.465125)

Closed and lease 48 months
MSRP: \$20,970 Residual: \$10,066
T.D.O: \$3,999 /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O.A.C)



9월 한달간 무이자 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정
626.513.4006



Sales 매튜 정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HHYUNDAI.COM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